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5장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것들

『죄 죽이기』 제5장, 인쇄 74~81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앞 장들을 전제로 이 책의 본론에 들어간다. 본론의 핵심 질문은 하나다. “강한 죄에 시달리는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강을 지킬 수 있는가?” 답을 바로 주기 전에, 오웬은 먼저 잘못된 토대를 걷어 낸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닌 것' 다섯 가지를 차례로 짚는다. 죄의 완전한 박멸, 겉으로만 그만두기, 타고난 성품 다듬기, 죄의 형태 바꾸기, 가끔 거두는 승리가 그것이다. 결론은 이렇다. 죄가 조용해 보이는 많은 경우에도 죄는 살아 있다. 그래서 신자는 '죄가 잠잠해진 것'과 '죄가 죽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 절별 정리

📜 1. 본론의 첫 질문과 이 장의 자리

오웬은 이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일 때 생기는 실제적인 질문들을 다루겠다고 밝힌다. 내재하는 죄란 거듭난 신자 안에도 남아 있는 죄의 성향이다. 모든 질문의 머리가 되는 첫 질문은 이것이다. 참된 신자인데도 강한 죄가 그를 사로잡는다고 하자. 그 죄가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흐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을 빼앗는다. 평안을 앗아 가고, 양심을 더럽히고, 속임수로 마음을 굳게 만든다. 이 사람은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도, 싸우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힘과 평강을 지키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오웬은 세 단계로 답하겠다고 예고한다. 먼저 죄 죽이기가 무엇인지 소극적으로(무엇이 아닌지, 5장), 이어서 적극적으로(무엇인지, 6장) 살핀다. 다음으로 일반 지침(7~8장)을 주고, 마지막으로 구체 지침(9~13장)

것이다. 이 책은 죄 죽이기 일반론이 아니라 바로 이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 둔다.

1. 본론은 “참된 신자가 강한 죄 앞에서 어떻게 할까”
2. 목표는 죄와 싸우며 교제와 평강을 지키는 것
3. 먼저 '아닌 것'을 걷어 내야 바른 토대에 선다
4. 순서: 소극적 정의 → 적극적 정의 → 일반 지침 → 구체 지침
5. 일반론이 아닌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질문을 세우고 책의 순서를 안내하는 도입부다

📜 2.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웬은 먼저 죄 죽이기를 죄를 뿌리째 뽑아 다시는 마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이것은 두 방향의 오해를 함께 막는다. 한편으로, 완전한 박멸은 분명 죄 죽이기의 '목표'다. 죄가 더는 소리치거나 꾀거나 유혹하지 못하게, 아예 없어지게 하려는 뜻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죄를 죽이려 애쓰는 사람이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목표는 이 세상 삶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거의 매번 승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근거로 오웬은 바울을 든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서 견줄 이가 없던 성도였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자기를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놓고 보면 아직 “얻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지 못해”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마지막 날 변화되어야 할 “낮은 몸”을 지닌 사람이었고, 우리도 같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지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아신다.

1. 죄의 완전한 박멸은 목표이지만 현세에선 불가능
2. 박멸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진짜 싸움이 아니다
3. 최고의 성도 바울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5. 우리의 온전함은 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빌립보서 3:12

바울조차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 없다는 증거

>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15

남과 비교하면 '온전'할 수 있어도 그것은 상대적이라는 점

>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빌립보서 3:21

죄의 완전한 제거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짐

>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골로새서 2:10

우리의 온전함은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위로

>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 3. 겉으로 짓던 죄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오웬은 죄를 숨기고 가리는 것이 죄 죽이기가 아니라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짓던 죄를 그만두면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 그는 그 죄를 버린 것이 아니라 속으로 여전히 짓고 있다. 게다가 '위선'이라는 죄까지 더했다. 위선이란 속은 그대로인데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지옥을 향해 더 빨리 달려갔다. 마음이 달라지길 했다. 하지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더 교활해졌을

1. 겉 행동 중단 ≠ 죄 죽이기
2. 사람은 '변했다' 해도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3. 숨긴 죄 위에 위선이라는 죄가 더해진다
4. 마음이 거룩해진 게 아니라 교활해질 수 있다

> **(직접 인용 없음)**
> 오웬은 이 절을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점으로 짧게 다룬다

“더 거룩하게 된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니라, 더 교활한 마음이 된 것일 뿐이다.”

📜 4. 타고난 성품을 다듬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온순하고 차분하다. 혈기를 부리거나 감정을 거칠게 터뜨리는 일이 드물다. 이런 사람이 수양과 묵상과 사려 깊은 생각의 훈련으로 성품을 다듬으면, 자기 눈에도 남의 눈에도 죄를 거의 다 죽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온갖 가증한 것이 마음 밑바닥에 가라앉아 그대로 있을 수 있다. 오웬은 두 사람을 비교한다. 한 사람은 평생 화낼 일 없이 살았다. 다른 한 사람은 거의 매일 분노와 씨름하며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혔다. 그런데 뒤의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죽인 사람일 수 있다. 앞사람은 원래 분노가 약한 기질이라 그것을 죽이려 애쓸 필요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자아도취, 불신앙, 시기 같은 '영적인 죄'에 빠져 살면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했을 수 있다.

1. 온순한 기질 ≠ 죄를 죽인 상태
2. 수양과 훈련은 겉을 다듬지만 뿌리는 그대로
3. 매일 분노와 싸우는 사람이 더 많이 죽였을 수 있다
4. 기질 덕에 안 짓는 죄는 싸워 이긴 게 아니다
5. 영적인 죄(자아도취,불신앙,시기)를 놓치기 쉽다

> 오웬은 성경 인용 대신 두 사람을 비교하는 예로 논증한다

📜 5. 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오웬은 마술사 시몬을 예로 든다. 시몬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동안 마술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이던 탐욕과 야심은 그대로 남아 다른 길로 흘러나왔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고 말했다. 죄악된 욕망을 경계하면 그 욕망이 그 모양으로는 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욕망을 만든 부패한 본성은 다른 모양으로 터져 나온다. 부패한 본성이란 죄를 낳는 타락한 내면의 성향이다. 오웬은 이것을 종기에 비유한다. 피부의 종기 하나를 치료했다고 완치된 것은 아니다. 뿌리를 없애지 않으면 다른 곳에 다시 종기가 난다. 이런 형태 변화는 은혜와 상관없는 이유로도 자주 일어난다. 관계나 이해관계, 계획이 바뀔 때가 그렇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며 체질과 성향이 바뀔 때도 그렇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을 때의 욕망을 하나도 죽이지 않았는데도 그 욕망에 더는 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교만하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정욕을 좇던 사람이 규범을 엄격히 따지는 사람이 된다. 허영을 좋아하던 사람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섬기는 주인만 바꾼 것이다. 그는 여전히 죄의 종이다.

1. 한 죄를 멈춰도 같은 욕망이 다른 길로 흐른다
2. 시몬: 마술은 버렸지만 탐욕과 야심은 그대로
3. 종기 하나 치료 ≠ 뿌리 제거
4. 나이, 형편, 계획의 변화로도 죄 모양이 바뀐다
5. 주인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죄의 종이다

> **사도행전 8:23**
> 겉의 죄(마술)를 버려도 속의 악독이 그대로일 수 있다는 실례
>
>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는 단지 자신의 주인을 바꾼 것일 뿐이고, 그 자신은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이다.”

📜 6. 가끔 거두는 승리 ① 죄가 터진 직후의 비상 상황

죄 죽이기는 죄를 '간헐적으로', 곧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웬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겼다”고 착각하기 쉬운 두 경우를 든다. 첫째는 죄가 갑자기 터져 나온 직후다. 이때 마음의 평안이 깨지고, 양심이 두려워하고, 수치심에 몸서리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온 마음이 번쩍 깨어 일어선다. 죄를 혐오하고 그런 죄를 지은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부르짖고, 그 욕망을 지옥 보듯 단호히 거부한다. 그러면 죄는 머리를 처박고 죽은 척한다. 오웬은 자객에 비유한다. 자객이 밤에 적진에 숨어들어 장수를 죽였다. 호위병이 깨어 나팔을 불고 샅샅이 뒤지면 자객은 소동이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 그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다. 같은 기회가 오면 똑같이 치려고 엿보고 있을 뿐이다. 고린도 교회가 죄를 발견하고 크게 놀라 분발한 일도 이런 장면을 보여 준다. 그 열심 자체는 진실하다. 그러나 비상 상황이 끝나면 욕망이라는 도둑은 다시 팔팔하게 일한다.

1. 죄가 터진 직후의 각성은 죄가 죽은 것 같은 착각을 준다
2. 수치, 두려움, 혐오가 한꺼번에 일어나 죄를 누른다
3. 죄는 죽은 게 아니라 숨죽여 기회를 엿본다
4. 고린도 교회처럼 진실한 분발도 그 자체로 죽임은 아니다
5. 소동이 지나면 도둑은 다시 활동한다

> **고린도후서 7:11**
> 죄가 드러난 뒤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격렬한 경각심과 분발의 실례
>
>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객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며 단지 가만히 있는 것일 뿐”

📜 7. 가끔 거두는 승리 ② 환난 속의 결심

둘째 경우는 심판이나 재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다.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과 위험에서 벗어날지 궁리하는 데 몰두한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벗어날 길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뿐임을 안다. 그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환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진노를 멈추려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결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도 죄에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죄가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죄가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다. 죄를 대적하는 생각들이 마음의 기관들을 차지하고 위세를 떨치니 죄가 숨을 죽인 것뿐이다. 그 생각들이 힘을 잃으면 죄는 다시 살아난다. 오웬은 시편 78편을 근거로 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치실 때 돌이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다. 오웬은 그들이 그때 진심으로 죄를 버리려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돌이켰다”는 말 자체가 죄를 버린다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정함이 없었고 언약에 성실하지 않았다. 그들의 죄는 죽지 않았다. 오웬은 환난으로 마음이 낮아진 때에 신자들 안에서도 이런 큰 속임수가 흔히 일어난다고 경고한다.

1. 환난 속에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죄를 끊기로 결심한다
2. 죄는 다친 게 아니라 다른 생각에 밀려 숨죽였을 뿐
3. 결심이 약해지면 죄는 생명과 활력을 되찾는다
4. 이스라엘은 진심으로 돌이켰지만 죄는 죽지 않았다
5. 낮아진 날일수록 “죽였다”는 착각이 흔하다

> **시편 78:32-33**

32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시편 78:34-35

치실 때 돌이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억한 진지한 반응

34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시편 78:36-37

그 진지함에도 마음이 정함이 없어 죄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

36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죄 죽이기(mortification)
신자가 성령을 힘입어 자기 안에 남은 죄의 힘과 뿌리를 꺾어 가는 일이다.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신자 안에도 여전히 남아 활동하는 죄의 성향이다.

죄악된 욕망(정욕, lust)
성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죄를 향해 마음을 끌어당기는 모든 그릇된 갈망이다.

소극적·적극적 고찰

먼저 '무엇이 아닌가'를 걷어 내고, 그다음 '무엇인가'를 밝히는 설명 방식이다.

위선

속은 그대로인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죄다.

영적인 죄

자아도취, 불신앙, 시기처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서 일하는 죄다.

간헐적 승리

위기나 충격의 순간에 죄가 잠시 눌린 것을 죄가 죽은 것으로 착각하는 상태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말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살아 있는 관계다. 죄는 이 힘을 약하게 만든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죄 죽이기의 목표는 죄의 완전한 제거다. 그러나 이 세상에선 다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 겉으로 그만두기, 기질 다듬기, 다른 죄로 바꾸기는 죄 죽이기가 아니다. 그것은 위선이거나 주인을 바꾼 것일 뿐이다.
- 넘어진 직후의 각성이나 환난 속의 결심으로 죄가 잠잠해지는 것은 죄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죄는 숨죽여 기회를 엿볼 뿐이다.
- 이 '아닌 것'들을 걷어 내야 6장에서 말할 참된 죄 죽이기의 바른 토대에 설 수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5편 · 죄가 잠잠하면 죽은 걸까 · 죄 죽이기가 아닌 것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